

# 여자배구·여자핸드볼 주말 홈경기 ‘누가 웃을까’

페퍼저축은행 14일 현대건설과 경기 오늘 티켓예매  
광주도시공사는 13일 부산시설공단·15일 서울시청

광주를 연고로 하는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과 여자핸드볼 광주도시공사가 정규리그를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15일 주말 홈경기가 잇따라 열려 스포츠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과 15일은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광주도시공사 홈경기, 그리고 14일은 도드람 2021-2022 V리그 페퍼저축은행 홈경기가 펼쳐진다.

‘만년 꼴찌’에서 탈출, 우승까지 노리는 강팀으로 거듭난 광주도시공사는 13일 오후 7시 부산시설공단과, 15일 오후 7시 서울시청과 홈경기를 갖는다. 장소는 빛고을체육관이다.

지난 시즌 사상 첫 포스트시즌 진출 성과를 달성한 광주도시공사는 그동안 국제대회 개최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 2년간 홈경기를 갖지 못하고 원정경기만 치르다 이번 시즌 광주팬들 앞에서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인천시청과의 개막전에서 승리하며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했다. 두번째 경기 SK 슈가글라이더즈에 2골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력에서만큼은 뒤지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랜만에 홈팬들 앞에서 경기를 하기에 필승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다.

13일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부산시설공단이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정상에 오른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류은희(헝가리 코리), 이미경(일본 오모리), 권한나(SK), 오사라(경남개발공사)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나 전력 약화가 우려됐다. 그러나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 파뮈리에라와 골키퍼 가비나를 데려와 전력 손실을 최소화했다.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운 부산시설공단은 개막 2연승을 달리고 있다.

15일 상대 서울시청은 1승1패를 거뒀다. 송지영과 우빛나의 활약이 돋보이는 팀이다.

서울시청과의 경기는 ‘자매대결’이 성사될 지도 관심이다. 광주도시공사 정현희(RB)의 언니 정진희(GK)는 한체대 출신으로 지난해

말 신인 드래프트에서 서울시청의 지명을 받았다. 지난해 제25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도 자매가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나서기도 했으나 실업무대에서는 ‘적’으로 만나게 됐다.

SK핸드볼 코리아리그는 관중석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 방역수칙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이거나 PCR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전체 관중석의 50%인 723명 입장 가능하다.

여자프로배구 막내구단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14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서 현대건설과 홈경기를 갖는다.

10일 현재 22경기에서 단 1승(21패)만 거뒀고 16연패로 부진한 가운데 다시 1위팀을 만나게 돼 고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배구팬들에게는 페퍼저축은행뿐 아니라 상대팀인 현대건

설 양효진과 이다현의 트윈 타워, 김연경·황민경·고예림의 견고한 수비, 야스민 등의 플레이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대건설은 21경기 만에 20승을 채우며 ‘최단기간 20승’ 기록을 세우며 역대 한국프로배구 V리그 최다승 기록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2위 한국도로공사(승점 45·16승 5패)와의 승점 격차는 14점이다. 현대건설은 V리그 여자부 단일시즌 최다승 기록 2012-2013시즌 IBK기업은행이 달성한 25승(5패)에 도전중이다.

프로배구 역시 관람객 백신패스(2차 접종 완료자 또는 출입 48시간 이내 PCR검사 완료자 음성확인)를 적용한다. 페퍼저축은행과 현대건설 경기 예매는 11일 오후 2시부터 한국배구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미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에서 결승까지 진출하며 태권도의 매력을 전 세계에 떨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이 10일 나주 동신대학교 체육관에서 단체훈련을 하며 역동적인 동작으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부터 동신대 체육관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는 ‘2022년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은 새해 첫 전지훈련을 이곳에서 마친 뒤 두바이로 이동, 올해 첫 공연을 선보인다. /김태규 기자

##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동신대서 전지훈련

올해 태권도학과 신설  
인재양성 밑거름 기대감

미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에서 결승까지 진출하며 태권도의 매력을 전 세계에 떨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이 동신대학교에서 새해 첫 전지훈련을 진행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신대는 지난 7일부터 대학 체육관에서 ‘2022년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2022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단원 32명을 선발한 시범단은 총 50여 명의 시범단원을 꾸려 11일까지 4박5일 동안 동신대에서 전지

훈련을 진행한다.

올해 태권도학과를 신설, 첫 신입생을 맞이하는 동신대는 태권도의 세계화를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이란 교육 목표에 맞춰 이번 전지훈련을 유지했다.

지난 2009년 창단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은 아메리카 갓 탤런트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결승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 예선전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는 유튜브에서 무려 2,337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로마 교황청, 북한, UN본부 등 세계적으로 상징성이 큰 곳이나 올림픽과 세계대회의 개·폐막식에서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며 태

권도의 세계화에 큰 힘을 실고 있다.

시범단은 동신대에서 전지훈련을 마친 뒤 두바이로 이동, 올해 첫 공연을 선보인다.

동신대는 이번 전지훈련을 기회로 태권도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8-9일 올해 첫 신입생 30명이 전지훈련에 참가,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을 보고 배우며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할을 키웠다.

김철민 동신대 태권도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현장 실습 교육 등을 진행하며 우수한 태권도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또 이들을 해외 지도자로 성장시켜 세계적 인기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태권도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 광주시체육회 2022년도 사업계획 보고서

‘변화·공유·혁신·함께’ 비전

광주시체육회는 10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사업계획 보고회를 열고 연간 계획을 논의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022년 비전을 ‘변화하는 체육행정, 공유하는 체육시설, 혁신하는 광주체육, 함께하는 광주시민’으로 정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시체육회는 새 비전을 토대로 스포츠경쟁력 강화, 스포츠행정 혁신, 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스포츠 참여 확대 등 4개 목표를 실천하며 시민들과 선수들에게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국 청두하계유니버시아드,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대회 상위 입상,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스포츠의·과학 서비스 제공 등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스포츠인권 강화 및 공정성 제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체육인 복지 향상 등을 통해 행정도 혁신하며 초·중·고·대 학교팀 지원을 통해 연계성을 강화한다. 스포츠클럽 재정지원을 위해 예산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생활체육광장, 시민1인1종목맞기 운동 등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각종 생활체육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과 선수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스포츠활성화 기반을 닦아나갈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2025 광주세계야구선수권대회의 프레대회 성격으로 치러지는 현대양궁월드컵 개최 지원, 민선 3대 체육회장 선거 준비 등을 위해 임직원들이 합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 광주FC 공격수 하승운·골키퍼 이준 영입

GK 윤평국과 2대1 트레이드

광주FC가 공격수 하승운(23)과 골키퍼 이준(24)을 영입했다.

광주는 포항스틸러스에서 하승운과 이준을 영입하고, 골키퍼 윤평국(29)을 이적시키는 조건으로 맞트레이드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177cm 74kg의 날렵한 체격을 지닌 하승운은 빠른 발을 이용한 과감한 돌파와 날카로운 패스가 장점인 측면 공격수다. 공격형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으며 왕성한 활동량으로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평가다.

하승운은 지난 2017 아디다스컵 U-20 축구대회, FIFA U-20 월드컵 등 연령별 대표팀에서 9경기를 소화했다. 프로 데뷔시즌 포항에서 15경기 1도움을 기록했으며 이후 전남과 안양으로 임대돼 활약했다. 통산 52경기 2골 1도움을 기록중이다.

188cm 79kg의 탄탄한 피지컬을 갖춘 이준은 동물적인 반사 신경과 일대일 방어, 공중볼 캐칭이 강점이다. 뛰어난 유연성과 민첩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비조율로 팀의 실점을 막는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승운



이준

지난 시즌 프로 입단 3년만에 데뷔전을 치른 이준은 초반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이후 안정감을 찾고 슈퍼 세이브를 연달아 선보이며 팀의 2021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공을 세웠다. /조혜원 기자

## 광주시 제1회 생활체육레슬링대회 16일 열린다

전국 레슬링 동호인들의 생활체육레슬링대회가 빛고을 광주에서 개최된다.

광주점심생활체육레슬링동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제1회 생활체육 레슬링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든 참가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2차 완료자, 경기장 입장 2일 이내에 음성확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된다.

전국 레슬링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경기는 토너먼트 대신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과 단체 입상자에게는 상금을 포함해 상장과 메달, 트로피가 수여된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정영호 광주점심생활체육레슬링 동호회 대표는 “대한민국 레슬링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며 “동호인 모두가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그동안 뒤늦게나마 맘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